

“인력난에 비싼 인건비...농사 못 짓겠다” 호소

곡성서 열린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균형발전위 현장 간담회 가보니

전남 농민들 “도시 유휴 노동력 농촌 유입·외국인 숙소 대책 세워 달라” 기간 짧은 계절근로제 개선 요구도...정부 “부처간 협업 통해 해법 마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의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정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농사를 포기해야 할 만큼’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질적인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3일 곡성군 옥곡면의 ‘아름드리나눔센터’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농촌 일손부족 및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농민들에게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와 각 부처 관계자, 농업법인 대표와 농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토로했다.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가량 길어지기도 했다.

농어업인들은 하나같이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손 자체가 농촌에 없고, 도시에 있는 ‘유휴 노동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시와 농촌 간에도 인건비 차이가 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높어져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호소했다.

한철우 한국농업경영인 곡성군연합회장은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생계보조금·재난지원금을 주다보니 농촌으로 일손이 오지 않는다”며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어떻게 농촌으로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만겸 딸기양액재배연구회장은 “평일에는 노

동자를 3명 고용하고, 주말이면 1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해 한달 인건비만 1200만원 수준이다”며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순식간에 40%가 올랐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이 농민들에게 전가됐다”며 “대기업도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농민들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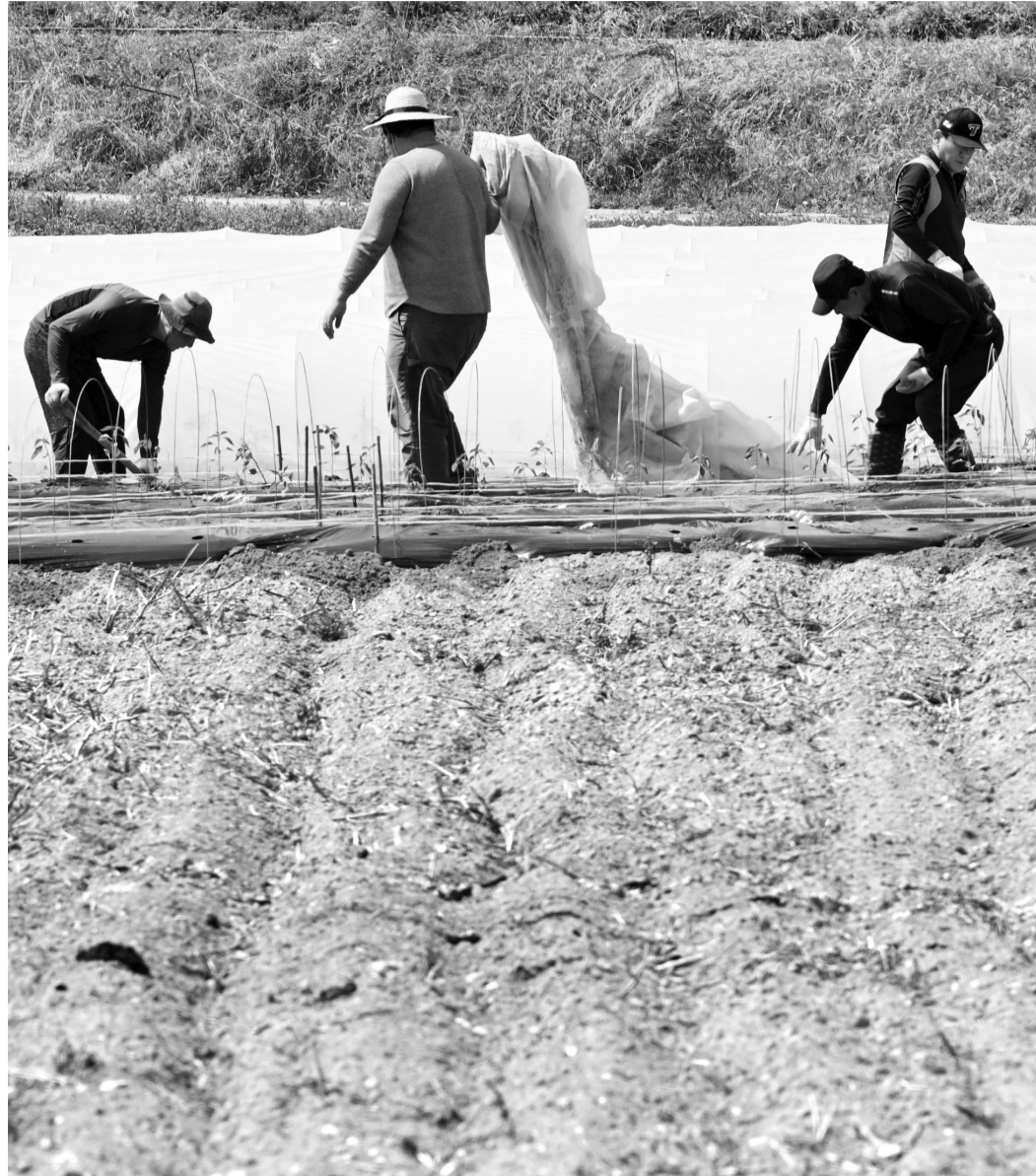
유정수 곡성군친환경연합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일반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결국 농민들은 1가구 2주택이 필요한 셈인데, 대기업도 아닌 일반농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 농민은 “농민들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사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왜 양육집을 제공해야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계절근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어업인도 있었다. 박연환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은 “김 가공공장은 보통 10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는데, 계절근로자는 기간이 5개월로 짧다. 이들이 기간만으로 출국하면, 공장운영을 못해 김 가공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8개월 수준으로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올해 주요 농작물 인력수요 및 집중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중이고, 농촌인력증가센터를 확대 운영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고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교통비, 보험비 등 간접 방식으



농부들이 3일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광주시 서구 서창동의 노지에서 고추 모종 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로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지역에 올해까지 외국인 기숙사 4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올해부터 농업에서 외국인노동자 숙식을 해결해주고, 단기간 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호응이 좋은만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제도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농민들이 말한 어려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잘못돼 농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인형 줄게” 9세 여아 유인 주민 신고로 40대 남성 검거

광주의 한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9살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어린이공원에서 B(9)양에게 접근해 “인형을 주겠다”며 거꾸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부모와 잠시 떨어진 틈을 타 접근해 500m 가량을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A씨가 여자아이를 데려가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디냐”는 주민의 질문에 삼촌이라며 형설수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인근에 있는 누나 집으로 데려가 인형만 주고 다시 공원으로 돌려 보내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며 쇠파이프 휘두른 40대 구속

목포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목포경찰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4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께 아파트 위층의 소음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B(47)씨의 집을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들고온 쇠파이프로 주방 선반을 부수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손목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아내가 같이 있었지만, 다행히 아내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는 B씨와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단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보복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성범죄 판결 2제

빌라 창문 너머로 여성 몰카...징역 1년 6개월

여성이 살고있는 빌라 창문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빌라 앞에서 숙웃만 입고 자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 7

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내부를 엿보기 위해 유유 투입구에 구멍을 뚫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성적 욕망에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간 남성 ‘집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청 앞 공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

소됐다.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바로 뒤따라 들어가 변기 문 앞에서 용변소리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면서 “A씨가 과거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